



일본학연구소의 식구들. 좌로부터 한미정, 최명희, 히구치 요코.

한림과학원 일본학 연구소는 국내에서 가장 큰 일본학 도서관이다. 이때 크다는 의미는 외적인 규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업무를 활발한 활동과 내실을 포함한다.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지명관 소장하에 도쿄여대 제자인 도서관 관리와 일본쪽과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히구치 요코 양, 연구소의 일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최명희, 조교 한미정 이렇게 세 사람이 상근하고 있다.

일본학연구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본관련 장서만도 5만 권 내외인데 이는 대부분 일본시민과 대학교수들이 이곳에 기증한 것들이다. 연구소에서는 이들의 협조를 표하기 위해 책 한권 한권에 기증자의 서명을 남기고 있다. 이는 일본학 도서관이 일본시민의 힘으로 연 것이라는 걸 알리고 한·일 양국 시민들의 연대를 표시하자는 의미이다.

각종 서적과 비디오 자료를 갖춘 일본 연구의 중심지

한림대 내에 있던 연구소가 현재의 평촌 자리로 옮겨온 것은 2002년 1월 말. 지명관 소장은 “국내의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의 연구소가 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가 연구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학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크게 ‘일본의 지방과 지방도시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 등의 국제공동연구사업, ‘근대 조선 지식인의 民族我 형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는 팀공동 연구사업, 그리고 연구소 저널지인 <한림일본학연구>를 비롯하여 일본학총서, 일본현대문학대표작선 등의 출판사업이다.

“출판업무는 모두 소화출판사에 위탁했으며, 출간 여부와 <한림일본학연구>의 내용성을 고민하는 것은 저를

일본학 연구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

비롯한 공동연구를 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림일본학연구>는 현재 7집이 나온 상태로 1년에 한 번 발간합니다. 일본어로 집필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연구는 이렇게 돼 있다 혹은 한국에서의 한·일 관계 연구과정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명관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출판물은 수익보다는 내용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들이 많다.

연구소는 작은 문화홀도 갖추고 있어 문화행사나 일본문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발표회, DVD 영화상영 등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LAB실을 갖추고 한림대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어학강좌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일반인으로서까지 확대할 계획. 도서관은 회원제로 개방할 생각이고 가능하다면 일본학 대학원도 이곳에 둘 계획이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이곳이 한·일 양국의 연구발전을 모색하는 데서 나아가 동북아 전체를 바라보는 연구소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 중이다. **출판**

취재 양선희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

(한림과학원 일본학연구소)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5-4 일송빌딩 4층
전화 (031)380-1638 | 팩스 (031)382-1630

